

하관예식 ❁

◆ 매장의 경우

-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묘소에 가까운 편만한 장소에 관을 안치하고 유가족들은 관이 있는 곳에 정중히 서서 조문객들의 문상을 받는다.
- 하관을 한 다음 관이 움직이지 않게 주위를 흙으로 채우며 관위에 명정으로 덮은 상태에서, 석관일 때는 세 번째 횡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관예식을 거행한다.
- 취토의 순서는 집례자, 유가족, 조문객의 순으로 한다.

♣ 하 관 예 식 ♣

• 개 식 사		집례자
• 사도신경		다 같이
• 찬 송	만세박석 열리니 (찬 188)	다 같이
• 기 도		집례자
• 성 경	요 5:24-29	집례자
• 설 교		집례자
• 기 도		집례자
• 찬 송	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(찬 364)	다 같이
• 축 도		집례자
• 취 토		유족부터

◆ 화장의 경우

• 화장의 경우에는 화장터의 상황이 예식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. 영구가 화로에 들어갈 때까지 찬양을 부른 후 화로에 들어간 후 기다리는 동안 성경말씀과 설교 기도와 찬송 축도를 진행하면 된다.

◆ 화장할 경우에 드리는 기도

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, 주님께서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. 주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따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형제(자매) ○○○씨의 시신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흙을 흙으로, 티끌을 티끌로 돌리옵니다. 주님께서 주셨사옵고 주님께서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.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, 형제(자매)의 육신은 지금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있사오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 주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. 하

나님 아버지, 육신의 이별 때문에 슬퍼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그리스도 부활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- 첫 성묘 - 일반적으로 장사한지 사흘째 되는 날을 택하나 주일을 피해 유족들이 편한 날을 택한다. 이 때는 유족끼리 묘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. 일 반으로 이를 삼우라고 부르나 이는 성경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.